

# 1881년 조사시찰단의 필담 기록에 보이는 한일 교류의 한 양상

— 『三島中洲·川北梅山·崔成大筆談錄』을 중심으로

이 효 정\*

##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V. 필담 중에 나타난 인식의 차이 |
| II. 필담을 통한 친교             | V. 나오며               |
| III. 필담 속에 드러나는 개념 이해의 차이 |                      |

## 국문초록

본고는 1881년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된 최성대와 일본인 한학자 미시마 추슈, 카와키타 바이잔 간에 이루어진 필담록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최성대는 사법제도의 시찰을 담당한 조사 엄세영의 수행원이었기에, 사법관에 종사했던 미시마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필담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던 당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간에 발생한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통신사 시

\* 일본 ICU 박사과정

대의 전례도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새로운 근대적 개념에 대응하는 어휘가 생성되지 않아 서로 간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확연히 지향하는 시대성이 달라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전환기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한 사적 기록들이 빈곤한 현 상황에서 이 필담록은 19세기 말 한일 지식 인간에 이루어진 상호인식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최성대, 미시마 추슈, 카와키타 바이잔, 조사시찰단, 필담

## I. 들어가며

본 고에서는 1881년 메이지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隨員(수행원) 최성대(崔成大, 1834-?), 일본의 한학자 미시마 추슈(三島中洲, 이름은 毅, 中洲는 호, 1831-1919), 그리고 미시마의 지인 카와키타 바이잔(川北梅山, 이름은 長顯, 梅山은 호, 1823-1905) 간에 이루어진 한문 필담 기록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담은 동년 7월 9일 미시마의 도쿄 자택(麴町壺番町)에서 대략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sup>1)</sup> 본 고에서는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한일 지식인들이 어떠한 교류의 모습을 보였고 또 양국을 비롯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간략히 보일 것이다.

『三島中洲研究』<sup>2)</sup>에 따르면, 이 필담 기록은 미시마의 자필본이며, 卷

- 
- 1) 明治十四年七月七日午後三時、朝鮮武班三品崔成大來訪、因招川北梅山、三人同酌筆談、至七時而罷、如左。寒流石上一株松舍主人 三島毅「識語」. 본문의 한자 표기는, 고유명사는 ‘한글(한자)’로, 그 외의 사항은 한자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 2) 三島中洲研究会有志 『三島中洲川北梅山·崔成大筆談錄』 『三島中洲研究』 4 (2009.3) 56쪽-86쪽. 본 고에서는 임시로 이 연구를 따라 본 기록을 『三島中洲

子本 한권(전체 130cm가 넘는다.)으로 되어 있으며 내·외제는 없고 冒頭에 미시마가 기록한, 필담의 간략한 유래인 識語<sup>3)</sup>가 있다. 이 자료는 오카야마(岡山)에 사는 엔도 히토시(延藤比登志)씨가 2006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미시마가 오카야마 출신이라는 사실과 관련 있을 것이다.<sup>4)</sup>

필담의 처음은 미시마와 최성대 둘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성대와 미시마가 각각의 질문과 대답을 각자의 종이에 쓰고, 한 문장씩 쓴 것을 서로 보이는 형식이었으며, 그것을 미시마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와키타가 도중에 참석하여 구성원이 세 명이 되었을 때에는 각자 쓴 종이를 서로 보이는 것이 곤란했는지, 한 종이에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필기한 것 같다. 거의 진행된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문장의 필체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필담록은 또한 이후에 朱筆되어 다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주필 부분을 보면, 각 文頭에 ‘第一 崔成大(成大·成)’, ‘第二 三島毅(毅)’, ‘五十七 川北長颯(長颯)’와 같이 진행 순으로 번호와 필자 명이 적혀 있고, 각문의 말미에는 괄호(「)가 표시 되어 있으며 필담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짧은 주도 첨가되어 있다. 이 주필은 필적으로 보아 미시마의 것이며, 정리 시기도 卷頭 識語의 필적 등에서 볼 때 필담 시기로 부터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5)</sup>

최성대가 참여하였던 조사시찰단(이른바 紳士遊覽團)<sup>6)</sup>은 1881년 4월

川北梅山·崔成大筆談錄』로 부른다. 이 연구에서는 필담록을 활자화하고 원본 사진도 실어 본 고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 3) 寫本刊本 등에서 본문의 앞뒤에 書寫入手의 유래나 날짜 등을 쓴 것. ‘시키고’, ‘시고’라고 읽는다.
- 4) 「2年前に見つけた。象牙の軸がきれいだったので、中身はわからなかったものの購入した。しばらくはそのままにしていたが、巻物の序文に三島毅という名前があったので知人に尋ねたところ、岡山出身の漢学者で二松学舎大学創業者、三島中洲のことに聞き、今年に入って大学に連絡した。学術研究の役に立つなら、こんなうれしいことはない。」(『東洋經濟日報』2008년 9월 26일자.)
- 5) 三島中洲研究会, 위의 논문, 56쪽.

초부터 윤 7월까지(4월 11일 나가사키 도착, 7월 28일 고베 출발) 약 4개월 여에 걸쳐 메이지 일본의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그것을 전문한 조사단이였다. 총 64명 규모의 이 시찰단은 12명의 조사, 27명의 수행원, 10명의 통사, 13명의 하인, 그리고 2명의 일본인 통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성대는 字는 사행(士行), 호는 운고(雲皐), 벼슬은 五衛將, 관향은 수성(隨城)<sup>7)</sup>이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sup>8)</sup> 시찰단 당시에는 사법제도 시찰을 명 받은 조사 엄세영(嚴世永, 1831-1899)<sup>9)</sup>의 수행원으로 파견되었으며 나이는 만 47세였다. 최초의 관비 유학생이 된 유길준·윤치호·유정수 등을 제외하면 수행원들은 대개 조사들과의 사적 관계를 통해 발탁된 양반 출신의 미출사자거나, 도일경력이나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하위직 관리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sup>10)</sup> 최성대도 엄세영과의 사적 친분으로 그의 수행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시마 추슈는 한학자이며,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 신치(新治)재판소장, 대심원판사, 도쿄제국대학 교수, 궁중고문관을 지냈으며, 니쇼가쿠사(二松學舎) 대학의 전신인 칸가쿠주쿠(漢學塾) 니쇼가쿠사(二松學舎)의 창립자이다. 저서로는 『霞浦游藻』, 『三日文詩』, 『中洲詩稿』, 『中洲文稿』,

6) 학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용어는 없는 듯하다. 원래 공식 명칭은 ‘동래부(東萊府) 압행어사’이다. 본 고에서는 허동현(『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1999, 1-2쪽.)을 따라 일단 조사시찰단이라 부른다.

7) 경기도 수원 근처

8) 민건호, 『동행일록(東行日錄)』, 부산근대역사관, 2008, 180쪽. 『동행일록』은 조사 이현영의 수행원이었던 민건호(閔建鎬, 1843-?)가 쓴 기행록으로 음력 1881년 2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일본 견문 내용이 담겨있다. 최성대와는 같은 수행원으로 서로 친하게 지낸 듯 하며 종종 온천에 가거나 불꽃놀이·시내 구경 등 일본 유람을 함께 한 기록이 있다.(위의 책, 33-34쪽, 82-83쪽, 85-86쪽 등.)

9) 1864년 과거에 급제하고 조사시찰단에 포함되어 일본의 사법성을 시찰하고, 수편의 시찰기를 남겼다. 한성부 좌윤·대사헌 등 다양한 관직 생활을 경험하였다.(위의 책, 27쪽.)

10) 허동현, 위의 책, 62-63쪽.

『虎口存稿』, 『詩書輯說』, 『論學三絶』, 『孟子講義』, 『探辺日録』, 『論語講義』 등이 있다.<sup>11)</sup> 아마도 그가 재판관을 역임하였던 경력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 최성대와 만나게 되었던 것 같다.

카와키타 바이잔은 옛 津藩士로, 미시마가 津藩의 사이토 세츠도(齊藤拙堂)에 다녔을 때부터의 오래된 30년 지기 친구이며, 修史局에 출사하였고 관직을 그만둔 뒤에는 미시마 저택에서 가까운 곳에 은거하며 단기간이나마 니소가쿠샤(二松學舎)에서 作詩文을 가르쳤고, 장기간에 걸쳐 미시마와 깊은 시문 교류를 한 인물이다.<sup>12)</sup>

## II. 필담을 통한 친교

최성대는 홍영식, 어운중 등과 같은 ‘급진’ 개화파는 아니었지만<sup>13)</sup> 엄세영을 따라 꽤 열심히 일본을 탐색했던 것 같다.

한인 최성대는 매일 사법성에 출두하여 필담으로 형법 치죄법의 질문을 한다고.<sup>14)</sup>

위 기사는 『조야신문(朝野新聞)』에 나온 최성대의 기사이다. 유학이 목적이었던 유길준, 윤치호, 유정수 등을 제외하면 수행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관련 기사가 존재한다. 물론 이것으로는 그가 개인적으로

11) 戸川芳郎 『三島中洲の学芸とその生涯』 雄山閣出版, 1999, 서문 1쪽-4쪽.

12) 二松学舎大学大学資料展示室의 설명.

13) 이 조사들은 흥아회(興亞會) 모임에도 참석하였는데 이때 미시마도 참석하였다. 참고로 『일사집략』을 보면, 흥아회는 조사시찰단 조사 전원에게 초대장을 보냈던 것 같지만 이현영은 참석하지 않았다.(이현영 『일사집략(日槎集略)』, 한국학술정보, 2008, 327쪽.) 참석했던 조사원들과 미시마의 수장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 1권, 不二出版, 1993, 135-136쪽.

14) 韓人崔成大は日々司法省へ出頭し筆談にて刑法治罪法の質問を為す由(『朝野新聞』 메이지 14년 7월 12일자)

일본의 근대문물에 각별히 흥미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조사업세영의 수고를 덜기 위해 열심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시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sup>15)</sup>

최성대는 이전에 이미 미시마와 면식이 있었다. 하지만 미시마가 도쿄제국대학에 출강해 多忙하여 최성대가 방문했을 때 마다 부재하였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담일인 7월 9일은 도쿄제국대학 졸업식에 해당하고 9월까지의 방학이었기 때문에, 미시마가 비교적 한가해져 최성대와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최성대와 미시마가 만난 이유는, 아마도 전술한 바와 같이, 수행원으로서 최성대가 사법제도 시찰의 의무를 가졌던 업세영의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법성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면서 미시마를 알게 되고, 또 사법제도에 대한 서적을 수집하고 그것의 한역본을 구하는 일에도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성대: 함께 온 업공은 늘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도, 법률서를 만드는 일이 바빠 여전히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미시마: 애석합니다.

근래에 지은 문장 한편 있습니다.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이 만약 우리 글, 즉 가나(假名)의 한역을 바라신다면, 시간이 있는 지인 중 한문에 능한 이가 있으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대: 만약 전일 부탁드린 ‘治罪法’의 번역을 얻는다면, 그 외 달리 번역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중순이라는 약속을 기다릴 뿐입니다.<sup>17)</sup>

15) 이 뿐만 아니라 7월 21일자에는 미시마와 함께 수창한 시도 등장한다. 이로 보아 본 필담 이후에도 이 둘은 다시 만났으리라 생각된다.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洋洋絃誦遍村閭、本賴大邦傳聖書、今日厚顏說新律、木桃眞箇報瓊琚。(三島中洲「朝鮮崔成大來問新律席上賦示」)規尺乾坤近尾閭、文治何必異其書、迢然三島平沈外、採寶人々採珮琚。(崔成大「次部」)『朝野新聞』 페이지 14년 7월 21일자.

16) 第一 崔成大(중략) 欲更話、果數次造門、而未能拜穩、於中忡悵矣。  
第二 三島毅 屢辱枉駕、屢不在家、多罪多罪。今日幸少閑、穩話至晚間亦不妨。

미시마는 한문에 능통한 당대 저명한 한학자였고 근대문물과 제도에 대해서도 밝아 한역에 관한 상담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대였기에, 최성대는 그를 몇 번이나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8)</sup> 실제로 엄세영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당시까지 갖춰 놓은 사법체계와 법전을 한역·채록한 총 7권의 『일본사법성시찰기(日本司法省視察記)』를 복명시 국왕에게 올렸다.<sup>19)</sup> 이 시찰기 중 「치죄법」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미시마를 통해서 얻은 책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인연으로 미시마와 카와키타 그리고 최성대는 조선과 일본의 문화와 풍속에서 사상, 조직 체계, 세계 정황과 이념 등에 이르는 諸분야에 대해 필담을 나누었다. 먼저 미시마는 조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가볍게 묻기 시작한다.

미시마: 귀국의 담뱃대는 길고 큰데 평소에 사용하는 것도 전부 그러합니까?

성대: 객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히 짧은 편입니다. 집이라면 이 배는

17) 百十一 成大 同伴嚴公、每擬一來敘話、而幹事律書鞅掌、尙未得偕。

百十二 毅 憾々。

百十三 毅 近文一篇乞正。

百十四 毅 先生若欲役邦文即称假名者。為漢文、有友人閑居能漢文者。弟紹介之。

百十五 成大 若得向懇治罪法翻譯者、則別無更翻者。方苦待中甸之約而耳。

본 고에서는 현대어역으로 인용할 때 미시마 추슈는 미시마로, 최성대는 성대로, 카와키타 바이잔은 카와키타로 표기한다. 또, 원문 가운데 필담의 상황적 설명으로 보이는 부분은 [ ]로 처리하였다.

18) 『일사집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171쪽, 210쪽, 329쪽 등.) 최성대 뿐만 조사시찰단은 짧은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물제도에 대한 한역본을 조선에 가져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또한, 박정양의 수행원이었던 이상재(李蔭在)도 스에마츠 지로(末松二郎)와 필담하면서 자료의 한역이 급하여 스에마츠 이외에도 사람을 구하고 싶다며 보수도 주니 주변의 적당한 한역자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秋月望「末松二郎筆談録に見られる「近代」」『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I, 慶應義塾大学出版社, 2001, 15쪽.)

19)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허동현 「1881년 조사시찰단의 메이지 일본 사법제도 이해」, 『진단학보』, 84호, 진단학회, 1997, 135-149쪽.

됩니다.<sup>20)</sup>

또한 최성대의 나이나 자녀 등 최성대 개인에 대해서도 묻는다.<sup>21)</sup> 카와키타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술과 안주 등에 대해서 묻는다.

카와키타: 귀국의 술은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안주는 무엇이 많습니까?

성대: 보리와 쌀로 양조한 것은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술이 좀 농후(濃厚)합니다.

안주는 생선이나 고기, 야채나 과일이 많습니다.<sup>22)</sup>

미시마는 조선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메이지 지식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기도 하였다. 일본에 최초로 경서를 갖고 온 왕인(王仁)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미시마: 귀국인 왕인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경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학을 배운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귀국의 사서(史書)에도 기재가 있습니까?

성대: 전승은 들었습니다만, 유적 등은 보지 못했습니다.<sup>23)</sup>

20) 第四 毅 貴國煙管長且大。夫人平生所用皆然乎。

第五 成大 客地也故甚短。居家則倍之。

21) 百三十五 毅 先生齡已躋知命乎。

百三十六 成大 賤齒今為四十有八。

百三十七 毅 有男一女三若干。

百三十八 成 加一三兩字

百三十九 毅 僕則反之、男三女一。

百四十 成大 過於僕四之三。

22) 六十八 長顯 貴國酒與弊邦如何。下物多用何物。

六十九 成大 麴米釀成則一也。而我酒較醞。

七十 成大 下酒之物、多用魚肉菜果。

23) 七十三 毅 貴國人王仁始傳經書於我、我邦修周孔之學、此為甲蒿矢。貴國史傳亦



뿐만 아니라 이퇴계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는데, 이는 조선 통신사의 시대로부터 이어 내려온 것으로, 유학적 배경을 가진 에도 지식인들과의 필담 속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삿말과도 같았으며 아래에서 보듯, 메이지 시대의 한학자와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시마: 이퇴계 선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높은 분입니다. 지금 그 후예는 관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성대: [관리]

미시마: 관위는?

성대: [2품관이라 쓴다.]<sup>24)</sup>

또 미시마는 조선에 호랑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 가죽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에는 곰이 있다는 이야기한다.

미시마: 호랑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가죽은 일본엔(円)으로 얼마나 합니까?

성대: 과연 많습니다. 원래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고, 잡기도 쉽지 않아서 그 가죽을 얻으면 우리 나라 사람들 또한 진귀하게 여깁니다.

미시마: 우리나라에는 곰은 있어도 호랑이는 없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대: 그러면 웅담(熊膽)의 구입 또한 쉽지 않습니까?

미시마: 쉽습니다.

성대: 우리나라에서는 사냥꾼들이 혼합물을 넣어, 진정한 약효가 없어지는 폐해가 많습니다만 귀국은 이러한 폐해가 없습니까?

미시마: 마찬가지로입니다.

---

載之乎。

七十四 成大 只聞其傳、未見其蹟耳。

24) 百三十一 毅 李退溪先生之名、高于弊邦。今有其後裔在朝乎在野乎。

百三十二 成大 施圈

百三十三 毅 為何品官

百三十四 成 加二字

근래 우리나라 의사의 십 중 팔구는 서양의학(기술)을 배우고 약  
약을 쓰기 때문에 응답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성대: 진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미시마: 제가 진짜를 찾아 헌정하겠습니다.

성대: 우리나라 사람은 복용하면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  
짜의 폐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sup>25)</sup>

위 대화에서는 근대 문물에 대한 양측의 태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서양의학’이 보편화되어 한방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미시마의 말에 최성대는, 일본이 ‘선택’하였다는 서양의학 자체에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고, 단지 ‘진짜 응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유신 이후의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시찰하려는 단원이었음에도 의외로 새로운 정보에는 무덤덤하였으며 (한방치료를 하다 양약으로 바꾼 메이지 일본과는 달리)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복용하면 효능이 있다는 말을 대신할 뿐이었다. 사소한 문답이었지만 이렇게 당대를 살아갔던 한일의 지식인들은 실제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필담의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25) 八十六 毅 聞多虎、其皮當我金若干。

八十七 成大 果多之、而此本害人之物、捉得不易、若得其皮、國人亦珍之。

八十九(원문오류) 毅 我有熊而無虎。所以為島國。

九十 成大 然則熊膽、買得不亦易乎。

百(원문오류) 毅 易。

百一 成大 弊邦銃手輩、多有和他失真之弊。貴國無此弊乎。

百二 毅 同。

百三 毅 近來邦醫八九學洋技、用洋藥。故獸膽不甚貴。

百四 成大 如欲得其眞者、將何為計。

百五 毅 弟周施搜索其眞、獻之。

百六 成大 弊邦之人、服則有效。故從以有失其眞之弊。

### Ⅲ. 필담 속에 드러나는 개념 이해의 차이

미시마는 조선의 역사서에 대해서도 묻는다.

미시마: 귀국의 정사(正史)는 무엇입니까? 제도를 기록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대: 우리나라에는 『국조보감(國朝寶鑑)』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건국 이래의 근신들이 기술한 것입니다.

미시마: ‘보감’은 대개 제도를 기록한 것으로 근신의 언행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대: 언행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중략)

미시마: 간행하고 매매되고 있습니까?

성대: 그럴 것입니다.

미시마: 외국인이 보는 것도 또한 허락됩니까?

성대: [고개를 흔든다.]

미시마: 서점에서 공매(公賣)되고 있는 역사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대: 경사자집(經史子集) 및 우리나라의 문장에서 이어(俚語)·야담(野談)·언문책 등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sup>26)</sup>

여기서 미시마는 조선의 正史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가 의식하였든 그렇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국사(national history)라는 범주를 염두에 두

26) 第二十一 毅 貴國正史為何、記制度者為何。

第二十二 成大 幣國有國朝寶鑑。此非一人作也。乃國朝以來近臣記述之者也。

第二十三 毅 寶鑑蓋記制度、如君臣言行、無記述之乎。

二十四 成大 非特言行而已。凡百事為隨有隨記者。(중략)

二十九 毅 上木壳之乎。

三十 成大 或有之。

三十一 毅 外邦人見之亦許之乎。

三十二 成大 掉頭

三十三 毅 書肆公壳歷史、為何。

三十四 成大 經史諸子百家、及本國文章書稿、以至俚語野談諺書等屬。

고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메이지 일본에서도 『일본외사(日本外史)』를 비롯한 자국 역사서가 유행하였는데, 역사서 자체가 주는 재미도 물론 한몫했지만, 이는 막부의 大政奉還<sup>27)</sup>에 따른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 만들기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반하여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 진출과 아시아 연대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은 대조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또 그것이 신문 등을 통해 범람하였기 때문에, 미시마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선의 역사서를 구한 것이라 생각한다.

재미있는 것은 최성대의 반응인데, 서점에서 판매되는 역사서가 있는 나고 했던 미시마는 ‘조선’의 ‘역사’서에 대해서 물었던 것임이 분명한데, 최성대는 ‘중국’의 ‘경전’인 經書, 諸子·百家 등과 함께 조선의 문장, 야담·언문집 등을 전부 들어 대답한 것이다. 이를 보면 최성대에게 조선과 중국을 문화적 관점에서 나누는 것, 또 역사와 이야기라는 장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간이 한참 지나 미시마는 다시 묻는다.

미시마: 귀국의 거리에서는 귀국의 고금의 역사를 서술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매매도 허락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성대: 예전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상관없을 듯합니다.

미시마: 제가 일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께 『국조보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대: 일은 옛 법에 따르기도 하고, 문제가 없을지는 현재는 법령이

27) 1867년 11월 9일 일본 에도 막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이다. 힘이 약해진 쇼군은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뒤에도 새로운 정치체제 아래서 권력을 장악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반막부체제 세력들은 막부 정권을 완전히 물리치고 왕정복고와 함께 막부 폐지를 선언하였다.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sup>28)</sup>

여기서 다시 개념을 정리하는 미시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시마가 의도했던 근대적 의미의 역사-자국의 역사(national history)-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귀국’의 역사서를 강조하고, 재차 다른 문장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를 기술한 책인 정사 『국조보감』-자신이 이전에 얻었던 그 정보-을 구하려 한 것이다.

미시마는 조선의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미시마: 귀국은 군현의 제도가 오래되었는데 관원은 여전히 世祿제입니까?

최성대: 군현제에는 본래 세록은 없지만, 단지 공신의 자손으로 녹위가 높은 자는 충훈부(忠勳府)에 등록되어 세록을 먹게 됩니다.

미시마: 오늘의 관원에는 공신의 자손이 많습니까.

최성대: 그렇습니다.

미시마: 제도는 군현이지만 실제로는 봉건제 같군요.

최성대: 충훈부는 내직(궁정 내의 관위)이고, 외관에는 없습니다.<sup>29)</sup>

메이지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막부의 大政奉還과 廢藩置縣 과정을 거쳐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 이는 잘 알려진 대로 서양 제

---

28) 百二十六 毅 貴国坊間、有売貴国古今史述之書乎。  
 百二十七 毅 不許外人見之、則或疑其不許売買。  
 百二十八 成大 在昔伊然。今似無碍耳。  
 百二十九 毅 僕欲呈日本史。先生賜国朝寶鑑否。  
 百三十 成大 事因舊律、但無碍与否、現無朝令、今不可特言質対。  
 29) 第九 毅 貴国郡県為制古矣。然官人猶世祿乎。  
 第十 成大 郡県則本無世祿。而但勲裔通籍秩高、則入勲府襲世祿。  
 第十一 毅 現今官人多勲裔勲乎。  
 第十二 成大 然。  
 第十三 毅 其制郡県、而其實如封建。  
 第十四 成大 忠勲府是內職非外官。

국들과의 경쟁에 기본 조건이었던, 근대적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군현제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천황을 권력의 중심으로 설정한 메이지 일본은, 그 명분을 古代의 천황들 및 군현제에서 찾았고 그것은 곧 메이지 시기 내내 존왕론의 기반으로써 선전되었다.<sup>30)</sup> 그렇기 때문에 미시마 역시 근대의 중앙집권화와 (조선 및 일본의) 전근대적 군현제를, 그 근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인식했으며,<sup>31)</sup> 그래서 ‘제도는 (근대적) 군현제임에도 실체는 봉건제’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미시마 스스로도 근대적 중앙집권화 시스템에 해당되는 말 혹은 한자어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문답은 조선의 관직과 신분제도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유독 세록을 들었지만, 미시마는 조선의 관직이 청국과 같이 과거시험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sup>32)</sup> 그는 신분에 따라 관직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했던 조선의 모습을 보고 봉건이라 표현하였던 것인데, 최성대는 모든 이가 세록을 먹는 것은 아니라며 대꾸한다. 물론 ‘봉건’이라는 말이 드러내는 근대적 (부정적) 뉘앙스를 최성대가 인식해서 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덧붙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세록제나 과거제와 같은 신분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대는 조선의 평범한 지식인이기에 이와 같은 반응은 어쩌면 당연

30) 이렇듯 과거와의 연결고리에서 그 근거를 찾았던 근대시기의 국민국가 만들기는 전술한 자국 역사서 범람 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31) 第十五 毅 弊国封建三百年、弟輩亦曾仕一諸侯。明治雖廢封建、舊諸侯稱華族、舊藩臣稱土族。(중략)

第十九 毅 弊国古代王政而郡県為制。中代覇府代執政、封功臣為諸侯。至近時、覇府還政朝廷。為之陪臣者、豈敢怨之。

32) 五十二ノ下 毅 貴国取土之方、猶清国乎。

五十三 成大 多以科試主之。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할 수 없다. 단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필담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 시기의 필담은, 구어가 통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배경지식을 가져 몇 개의 한자어(혹은 용례)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통했던 시대의 필담과는 그 양상이 달랐다. 새로운 개념들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거나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뜻을 첨가해, ‘말’ 만큼이나 ‘글’도 통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소통 당사자들 간에 개념 유입의 차이가 크던 당대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 IV. 필담 중에 나타난 인식의 차이

조사 시찰단이 파견되었던 당시 일본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책이 바로 황준헌의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sup>33)</sup>였으며, 일본에서 만난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시찰단원들에게 이 책을 아느냐고 물었다.<sup>34)</sup> 아마도 중화중주국의 문관이 일본의 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화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던 조선 문인에게 ‘문명’을 설명 혹은 설득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찰단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을 접했고 황준헌을 만났던 조사들은 이 책을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다. 최성대도 일본에 온 이후 이 책을 보았던 것 같다.

미시마: 이 책을 보았습니까? [황준헌의 『일본잡사시』를 가르킨다.]

성대: 이곳에 온 후 보았습니다.

33) 황준헌(黃遵憲, 1848-1905) 저. 황준헌은 1877년부터 1882년까지 공사관 수원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풍토와 역사에 관한 칠언절구 154수를 지었다. 1879년 간행된 2권의 책이며 1890년에 개정하였다.

34) 『일사집략』, 211쪽.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跋의 撰者 石川英을 가르킨다.]

미시마: 저는 이 사람과 친하지 않아 그 사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성대: 모든 것을 망라하여 빠짐이 없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미시마: 아침이겠지요. 청국인은 아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교류한 일본인도 그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성대: 아마 황준헌과 아침하는 무리겠지요.

그렇다면 왜 귀국에서 간행된 겁니까?

미시마: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서점이 간행을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성대: 『일본잡사시』의 기사는 귀국의 정치체제에 관한 것에서 거리의 풍속예까지 이르고 그것에 틀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시마: 옛 막부시대에는 엄금하였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서양의 정치를 배운 것이겠지요.<sup>35)</sup>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최성대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화와 당대의 청국(오랑캐)을 분리해서 여겼을 것이고, 황준헌, 장자방 등 일본(혹은 근대문물)에 긍정적이었던

35) 三十七 毅 先生見此書乎。指黃遵憲新著日本雜事詩。

三十八 成大 來此後見之

三十九 毅 此人現居何地面。指雜事詩跋撰者石川英。

四十 毅 弟與此人交疎、不知其居。

四十一 成大 悉網羅無遺云者、果然乎。指跋中語。

四十二 毅 蓋諛言耳。

四十三 毅 清客好諛言。故我邦人交之者亦効顰。

四十四 成大 蓋與黃氏阿好也。

四十五 成大 然則何以能刊行於貴國乎。

四十六 毅 世人喜新聞。故書肆刻之射利耳。

(중략)

四十八 成大 事係貴國政體、至及閭巷風俗者、有謬而不禁何也。

四十九 毅 舊政府之時有嚴禁、今則無之。蓋學洋政也。



일부 청국인들은 서양 오락케를 따르는 이단자들이라 생각하여 큰 자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국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아무 서점에서나 (심지어 외국인도) 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믿을 수 없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기에 여러 번 물었다. 이에 미시마는 서양을 배운 결과라 대답하였지만, 역시 최성대는 그 배워 온 서양의 것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응답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서양에 대한 언급이 나올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중국에 대한 미시마와 최성대의 태도이다. 미시마는 청국이 중화(전근대 시기의 총체적 시스템)의 중주국이라는 전제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최성대에게 『일본잡사시』를 보였던 거라 생각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국에서 인정하는 메이지 일본을 조선도 받아들이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sup>36)</sup> 하지만 그는 ‘청국인들은 아침을 좋아한다’ 라든가, ‘支那人’과 접했는데 ‘文’이 과도하고 ‘質’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sup>37)</sup>라며 청국 자체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에 비해 최성대는 『일본잡사시』 자체나 황준헌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난하지 않았으며, 그 발문을 쓴 일본인을 아침하는 무리라 하거나 이 책을 간행한 일본을 의아하게 여길 뿐이었다. 그에게 청국은 여전히 ‘대국’<sup>38)</sup>이었던 것이다.

미시마: 나는 원래 유학을 배웠지만, 오랫동안 사법관에서 서양의 법률서를 읽고, 또 서양인과 접촉하여 그 장단점을 알았습니다. 도덕에 있어서는 주공 공자를 중히 여기지만 단지 기술에 있어서는 서양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 그는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켜내야 한다는 당대의 아시아 연대론을 찬성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말년에는 조선을 문명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에 따른 침략을 지지하였다.

37) 百四十三 毅 近年僕多接支那人、大抵過文而少質。

38) 五十五 成大 多讀經史、此外自大國出來、自古劇煩。

성대: 고금천하에 어찌 도덕을 버리고 기술을 존중하여 정치를 하는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상호가 보완되어 도올 때 혼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략)

미시마: 그러나 老莊도 또 도덕을 자칭하고 있으며, 불교나 예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주공 공자로서 참도덕이라 여깁니다.

성대: 아닌 것을 들어서 구별도 할 수 없는 모양이라면 말할 것 까지도 없습니다.

카와키타: 주공 공자가 현대에 살아 있다면 도덕을 제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성대: 유학은 동일하게 우리 아시아 제국에 있어서 즉 전부터 행해져 온 것입니다. 서양인에게도 가르쳐 우리 도덕의 영역에 도달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이 세계 중에 미치면 공리나 기술을 더 논할 필요 없습니다.

카와키타: 공리나 기술은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도덕을 그 근처에 두면 거짓된 속임에 빠지지 않습니다.<sup>39)</sup>

위 문답은 서양 문물에 대한 양측의 대립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필답이 무르익자 미시마는 서양 기술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그는 도덕은 유교를 따르지만 기술은 서양의 것을 취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미시마의 언급에 최성대도 더이상

39) 百四十九 毅 弟元修儒學者。然多年在法官、誦洋律、又與洋人接、知其長短。如道德則周孔不可不奉。

但其技術取洋所長、恐公平。貴意如何。

百五十 成大 古今天下、安有拋道德尚技術而致治之理乎。寧互濟之則無怪耳。

(중략)

百五十二 毅 然老莊亦自稱道德、積氏耶蘇亦然。故余以周孔為眞道德。

百五十三 成大 不能辨似是之非、則何足道哉。

百五十四 長顯 使周孔在今日則必不唱道德。而眞道德在其中。如何。

百五十五 成大 同我亞細之國尚矣。無論辨與西人而入我道德之域。道德彌天地則更有何功利技術之可論乎。

피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 논제는 더이상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당대의 핵심적 주제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유학자에게 도덕은 여전히 제도 및 문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이었다. 도덕, 즉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유교 정치의 논리였기에 이 같은 도덕과 기술의 분리는 최성대에게 원천적으로 무의미했다. 반면, 정교가 분리되고 모든 종교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했던 메이지 일본은 도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관계없이 논의 가능하였고 이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다. 그중 미시마는 유교를 택하였기에 (실제 목적은 서양 문물 습득을 어필하고자 하였지만) 유자 최성대에게 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인데, 최성대에게 그것은 논의조차 불필요한 사항이었다. 최성대는 도리어 우리 ‘아시아 제국’이 (덕을 모르는 오랑캐) 서양을 거꾸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때 그가 말한 아시아 제국은 아마도 중화질서(조공체제)에 속했던 제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었겠지만, 메이지 일본은 이미 그 속에서 탈피하여 만국체제 속 근대 국가로 향하고 있었다.

미시마: 성인은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고대의 제왕이 수렵 어획 농경을 위해 도구를 만들었던 것은 모두 백성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서양인이 기계를 만들어 생활 도구로 한 것은 고대 성인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서양의 기계를 써서 생활을 도우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의 유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성대: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선생은 저를 놀리시는군요. 적당히 하십시오.

미시마: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고, 取長捨短의 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溫故知新은 성인의 가르침이고,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성대: 장단은 물론 스스로가 어떻게 선택하는 가에 달렸습니다. 어찌서 본보기를 서양인에게서 구하는 것입니까? 옛날의 성세(盛世)

에 있어서도 장점을 서양에서 구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략)

미시마: 우리 나라 십수년 전의 의론은 모두 선생과 같았습니다. 메이지 초기 정치는 개혁이 너무 과격하여 서양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만사를 모방하였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이것이 한학이 부흥해 온 이유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취장사단의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성대: 선생의 친근한 말을 지금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장단의 논리는 깊이 믿을 수 있겠군요. 귀국이 후회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할 전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40)</sup>

위에서 미시마는 성인이라는 유교의 명분을 내세워 (자본이라는 근대의 핵심 수단은 쉽사리 감춰진다.) 민생을 위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성대는 왜 그것이 하필이면 서양문물이나며 반발한다. 최성대에게 서양은, 선택지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교화의 대상인 이적(夷狄)이었다.<sup>41)</sup> 이렇게 강경한 최성대를 보고 미시마는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한발 물러선다. 최성대의 ‘현재’가 메이지 일본의 ‘십수년 전’이

40) 百六十二 毅 聖人代天生養斯民、古帝王製網罟耒耜諸器、皆所以生養之也。西人製器械為生養之具、是奉古聖人之遺意。我取之助生養亦聖人之遺意也。

百六十三 成大 豈其然乎。不其然乎。

百六十四 成大 先生固戲我蔑裂也。

百六十五 毅 決非戲言、僕持論如此耳。蓋取長捨短之說也。溫故知新、聖人之教、本來然。

百六十六 成大 其長其短、固在我之如何取捨、何庸取法於西人乎。在昔曠世未聞取長於西也。

(중략)

百六十九 毅 弊國十數年前議論、皆與先生一致。明治初政、矯枉甚過、遂心醉西制、百事模效之。今則稍悔之。是漢學之所以再興也。於是始有取長捨短之論。

百七十 成大 先生衷曲之言、今始得聞。向前所云長短之論、僕豈深信也哉。貴國之稍悔、當為弊邦鑑轍之明證也。

41) 百八十九 成大 (중략) 至如西人是一種異種、不欲聞之。斯文不墜、則天將有徇鐸之日也。

라는 수사를 빼놓지 않으면서 급격했던 개혁의 부작용으로 한학이 부흥되었다는 미시마의 말을 듣고 최성대는 안도하며 이를 조선의 전례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 V. 나오며

그동안의 조사시찰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시찰에 관계된 보고서나 공식적인 견문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체류 중의 일상적 활동이나 한일 간의 접촉 실태에 대해서도 공적 기록의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제약성도 존재하여, 전후의 사정 등으로 추측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 많은 시찰단의 구성원이 국제법(만국 공법)을 비롯한 근대 제도 및 문물에 긍정적이었다고 고찰되어 왔던 경향도 있었다.<sup>42)</sup> 하지만 이 필담록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시찰단원이, 특히 최성대와 같은 무명의 하급양반들이 근대적 문물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고, 단지 국왕의 명령에 의해 해당 기록들을 수집했다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었다.<sup>43)</sup>

또한 이 필담록에서는 한일 간에 발생한 근대 인식의 相異를 보여준다. 필담은 구어가 서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잇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국제 간의 통행이 많지 않고, 특별히 통역을 담당하는 관리들과는 계급과 지식 기반이 달랐던 사행 관료들의 입장에서 고급의 지식 담론일수록 필담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한자는 어떤 의미에서 불확정적인 국가의 사람들 간에 이루어졌던, 그들을 중화권이라는 정체(공동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들은

42) 조사시찰단의 성향을 크게 일부의 급진적인 개화파들과 다수의 온건한 동도서기론자들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279-290쪽.)

43) 물론 몇몇 급진적 인물들이 소위 개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구어가 다르고 또는 정치적으로 반감이 존재했을 것이 분명한 환경 속에서도, 필담 상황에 놓여서는 친근하고 정감 있는 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필담의 전제는 문화적 일체감, 사대질서의 확인과 천하 질서, 진리 공동체, 계급적 평행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sup>44)</sup> 이러한 필담의 기본적인 속성들이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점차 변화해간 것이다.

미시마와 같은 전환기의 근대인은 필담 자체가 이미 (국어 생성 이전의) 봉건적 소통의 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담을 수단으로 하여 근대(국민국가)의 체제와 문물을 설명하려하고, 봉건(사대질서)을 평가절하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또한 앞서 살핀 대로 일본이든 조선이든, 기존의 한자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근대 문물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왔음에도, 필담에 쓰이는 용어들은 기껏해야 ‘고대’에서 끌어들이던 군현제와 같은 말 뿐이었다.<sup>45)</sup> 이러한 상황-의미와 그것을 재현하는 언어가 불일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이 완벽히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전 조선 통신사의 필담에서 보여주는 갈등이란 고작 같은 중화체계 안에서 누가 더욱 우월한가를 겨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필담은 중화체계(사대질서)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였다. 필담이라는 장르에서 보이는 상호간의 오해와 이해의 차이, 이런 갈등의 모습은 결국 양측이 근대를 보았던 태도의 문제였으며,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전환기 한일양국의 상호 및 세계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짧은 필담의

44) 황호덕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49-51쪽.

45)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도 근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당시까지 만해도 근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거나 완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찰단은 그 한역본을 구하려 열심이었고, 그것을 조선에 다시 유입시켰다.

내용으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 등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대의 다른 자료들을 함께 다루면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대의 필담은 현재 발견된 것 이외에도 다수 일본에 산재한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이들을 발굴하여 근대화의 중요한 시기였던 19세기말 조선인과 일본인의 소통 방식과 상호 이해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朝野新聞』

三島中洲研究会有志 「『三島中洲・川北梅山・崔成大筆談録』」 『三島中洲  
研究』 4권, 이송학사대학 21세기 COE프로그램 사무국, 2009,  
56-113쪽.

허동현, 「1881년 조사시찰단의 메이지 일본 사법제도 이해」,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1997, 135-149쪽.

황호덕,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 성균관대 박사학  
위논문, 2002, 49-51쪽.

민건호, 『동행일록(東行日錄)』, 부산근대역사관, 2008, 1-180쪽.

이헌영, 『일사집략日槎集略』, 한국학술정보, 2008, 17-347쪽.

허동현,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1999, 1-2쪽.

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37-235쪽.

『興亜会報告・亜細亜協會報告』 1권, 不二出版, 1993, 135-136쪽.

戸川芳郎, 『三島中洲の学芸とその生涯』, 雄山閣出版, 1999, 1-4쪽.



<Abstract>

Korean-Japanese Interaction Seen through  
Written Conversations Involving the 1881  
Official Observation Group

- Focusing on the “Written Conversations among  
Mishima Chūshū, Kawakita Baizan, and Ch'oe  
sǒngdae”

Lee, Hyo-Jeong

This study is introducing the written conversations (『三島中洲川北梅山崔成大筆談録』) among Ch'oe sǒngdae who was dispatched in 1881 as one of the members of Official Observation Mission, the Japanese Chinese Literature scholar Mishima Chūshū and Kawakita Baizan. Ch'oe sǒngdae was a secretary of Eōm Seyoung who took charge of the inspection of Meiji Japna's justice system, that is why he had the chance to meet Mishima who was engaged to the judicial official. From these written conversations, we can see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which happened among the East Asian intellectual people when the time changed from pre-modern to modern. Even they still show us same historical example from Tongshinsa time, they had the confusion because new vocabularies with new modern concepts were not made up clearly yet. Also, they had conflict between Chosǒn and Japan, because they aimed to different timeness at that time. We don't have that enough Chosǒn-Meiji Japan relation records, compared to Edo period, so this dialogue is an important record which

show us how Chosŏn and Japanese scholars saw the modern time and the world.

Key Words : Ch'oe sŏngdae, Mishima Chūshū, Kawakita Baizan,  
Official Observation Mission(朝士視察團),  
written conversations(筆談)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